

우드펠릿,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상

에너지기업 발전소 원료로 병용 ... 탄소배출 제로 청정연료로 분류

목재 폐기물을 가공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원인 우드펠릿(Wood Pellet)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에너지기업들이 기존 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태울 수 있는 우드펠릿을 경쟁적으로 사들이면서 우드펠릿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아칸소 등 미국 남동부 일대가 우드펠릿 수출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7월8일 보도했다.

우드펠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해 고온과 압력을 가해 원통형 모양으로 가공한 목재연료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제로인 청정연료로 분류된다.

우드펠릿은 특히, 환경 선진국인 유럽에서 친환경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EU(유럽연합)가 2020년까지 소비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 나무 소재 연료 구입액은 2009년 1-3월 9200만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했다.

미국은 최근까지 약 40개의 펠릿 공장들이 연간 90만톤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Green circle Bioenergy가 2008년 5월 플로리다주 코튼데일에 50만톤을 신설했으며 추가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신증설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마침 펄프와 종이산업이 쇠퇴하고 있고, 주택시장 침체로 목재 수요도 감소해 펠릿 공장들의 원료 확보가 수월해지고 있다.

GF에너지의 CEO 헬머 슈켄은 우드펠릿이 세계시장의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함에 따라 암스테르담 에너지 거래소에서 가격이 게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9>